

열린마당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김현숙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김영수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다. 엑스포의 참가를 통해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확대·전환하고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해서다.



비록 우리의 6차산업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기엔 부족한 공간이었지만 부스의 벽면에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더유'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엑스포 참가가 어려운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인분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엑스포 참가의 취지 중 하나인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스내 전시물이 나타내는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퀴즈로 풀어보는 이벤트를 주력으로 결정했다.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품은 기본! 퀴즈를 풀기 위해 이벤트 내내 진행자가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해 반복되는 설명을 함으로써,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뿐 아니라 부스 주변 관람객들에게까지 인지도가 높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엑스포 기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주말 오후시간대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총 7일간 센터 부스에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이 약 1,000명이나 되었다.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의 홍보를 지원하고자 본 센터의 부스에 참여한 업체는 총 10개. 충남에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6차산업화 경영체를 선정했다. 비록 짧은 했지만 3일씩 두 개의 경영체가 돌아가면서 업체홍보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드렸다.

이 기간 동안 매출 500만원을 기록한 경영체도 있었지만, 모든 업체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기간 내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서 부진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고 눈앞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일본 도쿄대 '이마무라 나라오미' 명예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데, "농업은 1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 및 3차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업을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2차 3차 = 6차)를 전개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성,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6차산업화라는 의미가 국내에 급속하게 도입된 것은 최근 2~3년. 일본에 비해 역사가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의 6차산업화라는 개념이 도입

■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



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농업·농촌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 었다.

학술적으로는 급격하게 도입된 시기가 최근이지만 농업기반의 사업화인 6차산업화에 대하여 개념도 입 이전부터 고민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모아보았다. 인터뷰의 응답자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서 본 센터의 부스에 자사 홍보를 위해 참여한 6차산업화 경영체의 대표 중 세 개 업체의 대표로 배가원의 배수영 대표, 꾸지나무 골 영농조합법인의 김진현 대표, 해당골의 임은주 대표다. 현장에서 느끼는 6차산업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배가원



조상들의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현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웰빙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별한 조리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장



아찌를 생산하고 있다.

총 20여 종류의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장아찌 외에도 매론, 곰취, 구기자 등의 장아찌도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를 자가생산하거나, 주변농가로부터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다.

최근 들어서 웰빙식품, 힐링푸드, 슬로푸드 등 음식을 통해 몸을 이롭게 하고자하는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 흐름에 발맞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장아찌 비법을 토대로 장아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6차산업화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에서 주관하는 '6차산업화리더아카데미'를 통해서 6차산업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며 도시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없어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인데, 6차산업화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며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판매를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택배로 장아찌를 보내다보니 택배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점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장아찌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소량생산체계에서 대량생산체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



6차산업화센터의 부스에서 장아찌를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지만 3일 동안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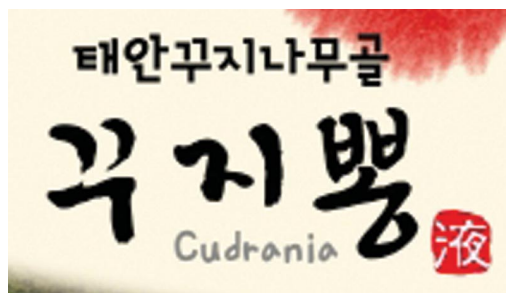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와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 가격 등을 고려해야겠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식품기업관 내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는데,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업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제엑스포로서의 조건을 갖추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식품기업관 내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구색이 편향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국외 업체의 참가수도 적었지만 국내 업체의 지역적 분포가 충남에만 편향되었고 품목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배가원은 현재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규모를 확장시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규모가 확장되면 농촌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림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 싶다. 현재는 여력이 안 되지만 수익창출이 커지면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업체가 되고 싶다. 또한 배가원을 통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싶다.

2. 꾸지나무골 영농조합법인



충남 태안군 이원면은 꾸지뽕나무의 자생지로서 꾸지나무골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꾸지나무골 영농조합 법인은 꾸지나무골에 위치해 있다. 꾸지뽕액기스를 상품으로 2012년 마을 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사업 2년차인 현재는 조합원수가 11명으로 증가하였다. 꾸지나무골에는 '꾸지나무



골해수욕장'과 트레킹코스인 '솔향기길'이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이 4~5만명 정도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해보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고향인 태안으로 귀향하면서 2008년부터 만대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상품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있던 와중에 충남도의 3농혁신과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도농교류가 이뤄진다면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농교류를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6차산업화라고 생각하는데, 1차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를 활발히 촉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마을기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보니 원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었다. 처음 시작은 귀농한 분들을 필두로 출자자가 저를 포함해 5명이 전부였지만, 1차 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원주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로 현재는 출자자가 11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엑스포를 참여하기 위해 준비가 미흡했음을 느꼈으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그 이목이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을 터득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6차산업화센터에서 제공해준 홍보공간의 위치였는데, 업체들이 줄줄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홍보관 형태의 부스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위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

사람들의 발길이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보다 적어서 홍보 및 판매가 부진했다.

하지만 여타 업체들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을 할 수 있었고 포장재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 또한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꾸지뽕의 효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엑스포 참가 후에도 방문해주셨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으며,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꾸지나무골에 방문해 주시는 도시민들이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페에서는 꾸지뽕액상차와 꾸지뽕잎차 등을 제공해드리면서 방문객들이 마시고 있는 차류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해 제공되는지 체험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한다.

인도의 속담 ‘빨리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고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처럼 농촌의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푸른숲을 느리지만 다함께 가꿔나가고 싶다.

3. 해담골

해담골



해담골은 장류업체이지만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어육장’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장을 담그고 있다. 해담골의 임 대 표는 논산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논산의 강경에서 젓갈장수 아주머니가 가져오시던 생선으로 담은 된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과 외숙모로부터 전수 받은 장 담그는 비법을 이용해 특색있는 장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육장’은 예로부터 왕가와 사대부에서 담가먹던 장으로 염장을 통한 고기의 저장 외에는 보관이 어려웠던 시절에 고기로 된장으로 담귀서 저장기간을 늘리고 이를 국으로 끓여서 먹었다하는데, ‘산림경제’ 등의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누구나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어육장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어육장 외에도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고추장과 인근 부여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토 고추장도 개발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의 전신기관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운영될 때부터 사업화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6차산업화센터가 설립되면서 ‘6차산업화 리더아카데미’를 통해 6차산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 행정과 기관 등에서 얘기하는 6차산업화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하는데, ‘농업은 앞으로 6차산업화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운동적인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 6차산업화를 알게 되었을 때, 6차산업화가 분명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6차산업화센터에서 6차산업화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바탕으로 현실성에 부합하는 6차산업화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장류사업은 항아리에서 장이 숙성되기까지 기간이 길고 자연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균일화된 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지만 자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마케팅에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느꼈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자녀들에게 장류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고 싶으며, 더 나아가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과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다.